

캄보디아 학생 장내 기생충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사업단 파견

글 · 사진 정 후 근 (국제협력과)



우리 협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캄보디아(Cambodia) 보건부(MOH) 산하의 국립기생충증·곤충병·말라리아관리센터(NCP EMC: National Center for Parasitology, Entomology & Malaria Control)와 공동으로 캄보디아 학생 장내 기생충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사업(Health Promotion of Cambodian School children by Intestinal Parasite Control)을 시작한 후 네 번째 사업단을 파견하였다.

그간 우리 협회는 캄보디아의 전국 장내 기생충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번 제4차 사업단은 프놈펜 남쪽으로 148km 떨어진 캄팟(Kampot)에서 코콩과 시아쿠크빌 지역의 학생과 주민 3,300명에 대한 기생충검사와 기생충담당자들에게 기생충질환예방을 위한 보건계몽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금번 장내 기생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해안과 평야지역에 산악지역을 접하고 있어서인지 다양한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감염률이 60% 이상으로 높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충(Hookworm) 및 조충(Tania), 회충(Roundworm), 편충(Whipworm) 등의 감염률이 높은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실시한 장내 기생충실태조사 중 금번 조사 지역의 감염률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캄보디아의 초등학교는 오전(07:00~11:00)과 오후(13:00~17:00)반으로 나누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었다. 12월 6일 목요일 오전에 캄팟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툴플레이초등학교와 미야카라초등학교 어린이에 대한 요충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툴플레이초등학교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깜짝 놀랐다. 우리 사업단을 환영하기 위하여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생충 질환예방을 위한 홍보용 티셔츠를 나누어 주었으며, 우리 보는 앞에서 전교생이 직접 옷을 다 입어보이기도 하였다.

1학년 교실 한쪽을 가리고 서울의대 채종일 교수와 경상의대 손운목 교수가 요충검사용 핀테이프를 이용하여 가검물을 직접 채취하였다.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내밀어야 하는 쑥스러움에도 잘 따라 주었는데, 4학년부터는 여학생이 쑥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중단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대다수가 맨발로 다니고 있었으며, 낡은 슬리퍼를 신은 정도가 양호한 상태였다. 그래서 인지 검사 결과 전교생의 60% 이상이 구충(Hookworm)에 감염이 되어 있었으며, 각종 피부질환에 노출되어 있었다. 검사가 끝난 후에도 우리 일행을 위하여 학생들은 너무도 밝은 모습으로 두 손을 합장(불교식)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툴플레이초등학교 교실에는 우리나라의 건설회사에서 기증한 칠판이 있었으며, 모서리에는 한국말로「참교육 참사랑」이라는 한글 표시가 있어서 인지 어린이들은 우리 사업단을 무척이나 잘 따랐다.

목요일 저녁에는 만분행 보건부 차관이 우리 일행을 본인의 고향집으로 초청하여 귀한 음식을 대접 했고 부인이 타고 다니는 빨간색 승용차의 문을 열어 놓고 흘러간 땀을 틀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차관이 시골집에 내려와서인지 인근 지역 가족과 NCP EMC 원장, 캄팟 보건관 계자들이 다 모였고 반바지 차림의 차관은 매우 소탈하게 격을 낮추면서 양꼬르맥주를 직접 따라주면서 우리협회와의 우정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외부 손님을 대접하는 그들

의 모습을 보면서 격식을 중요시하는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또한 캄보디아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지만 향내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 향채를 모조리 빼고 요리를 하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사업단은 현지에 머무는 동안 음식점에 갈 때마다 향채를 넣지 말아달라는 뜻의 〈노우 비-치엔, 노 짜〉를 연발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먹기에는 향이 재채기가 나올 정도로 거부감이 느껴졌다.

우리는 중증 감염자 몇 명에게 구충을 위하여 직접 구충제를 투여하기도 하였으며, 하체 기능이 있는 Magnesium sulfate(MGSO4) 50g을 물에 녹여 복용시켰다. 장속에 있는 대변을 모조리 받아서 쌀을 씻듯이 반복적인 작업을 통하여 충체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대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매우 고역스러운 작업이었다. 여자 어린이들은 MGSO4 냄새 때문에 복용하지 않으려고 해서 어르고 달래면서 먹여야 했지만 한 시간 이상 지속되는 설사를 하면서도 아이들은 플라스틱 바가지에 대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으며 고통스러운 뒤에 오는 상쾌함에서 인지 우리가 주는 간식을 너무도 맛있게 먹었다. 나는 여러 마리의 요충과 구충 한 마리를 병에 담아서 가지고 왔으며 이를 기생충전시관에 보관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이 신발을 신고 다녀야 구충에 감염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신발을 사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우리 사업단은 캄보디아를 떠나오는 날 KOICA 소장을 만나기 위하여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을 들렀다. 대사관 정문에서 상당히 당차고 똑똑해 보이는 아주머니 두 명과 어린이 셋이서 대사관에 들어가기 위하여 서성이고 있었다.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있어 말을 걸었는데 북한 말씨였고 이들은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각자 배낭을 메고 있었다.

KOICA 소장과의 면담에서 캄보디아 기생충에 대한 심각성에 동감하면서 우리 협회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해 주었으며,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자체적으로 기생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많이 도와달라는 당부도 하였다.

우리 일행이 대사관을 나올 때는 북한 주민으로 보였던 사람들의 배낭이 대사관 정원 야자수 나무 밑에 쌓여 있었으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북한 보건지원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로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었



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킬링필드의 주역인 쿠메르 루즈 지도자 폴포트 정권은 농업을 기본으로 한 원시공산주의에 바탕을 두는 경제정책 실패, 반대자에 대한 대량 숙청, 베트남과의 국경분쟁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며, 수백만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인 학살과 가혹한 노동으로 죽었던 슬픔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이제 비극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지난해 6월에 제1차 사업단으로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너무도 많이 변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한국의 교민과 한국으로 시집을 오는 현지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 130만 정도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는 우리나라의 건설회사에서 신축하기 위한 42층짜리 쌍둥이 골든타워 빌딩 모델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기대감에 캄보디아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톨플레이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하게 떠드는 모습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 나는 마지막 날 프놈펜 공항에서 우리 사업단 일행들에게 이런 말을 끝으로 프놈펜을 떠나왔다.

“우리가 이번에 찍은 사진은 세월이 지나면 색이 변할 수도 있으나,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서도 깊은 추억으로 가슴속에 남아 그리움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의 국제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시오.”